

# 渤海 上京城의 성립과 구조

김종복(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1. 머리말
2. 上京城의 성립 과정
  - 1) 上京 遷都 및 還都의 배경
  - 2) 상경성의 성립 - 규모의 확대와 구조의 변화
3. 상경성의 구조
  - 1) 宮城
  - 2) 皇城
  - 3) 外城
4. 맺음말

## 1. 머리말

渤海는 고구려 멸망 후 高句麗 遺民과 고구려 세력권에 포함되었던 靺鞨族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지역,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넓은 지역에서 200여년간 세력을 떨친 나라이다. 단지 영역만 광대할 뿐만 아니라 唐나라의 律令制를 근간으로 국가체제를 갖추어 海東盛國이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발해 자체가 남긴 기록이 전무한 상황에서 발해사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과거 발해의 영역을 현재 분점하고 있는 한국(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건국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발해사의 귀속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발해사를 自國史로 편입하려는 목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온전한 渤海史像의 구축에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성에서 발해사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발해의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발해의 상경성은 이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발해는 698년 東牟山에서 건국하여 顯州, 上京, 東京을 거쳐, 794년 上京으로 환도하였다. 전근대에 수도는 정치와 외교,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이처럼 100년 남짓한 시기에 네 차례의 천도와 그 결과 상경에 定都한 사실은 발해사의 전개과정을 규명하는 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上京은 가장 오랜 기간 발해의 수도였으며 규모도 방대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되어 몇 차례 발굴이 이루어졌다.<sup>1)</sup> 그 결과 上京城은 宮城과 皇城이 북쪽 중앙에 위치한 점이나, 중앙의 大路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구획된 도시계획을 가졌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 唐나라의 長安城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궁전터에서 발견된 온돌의 흔적이나 기와의 문양은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이처럼 도성의 구조나 그 유물은 발해의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글은 발해의 상경성을 통해 발해사의 전개 과정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상경성의 평면적인 구조나 규모의 확대 과정을 언급한 데서 한걸음 나아가, 천도 및 환도의 배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하에서 상경성의 확대와 내부 구조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상경성이 장안성을 모범으로 삼은 원인과 함께 발해사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기능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그 중 대표적인 것은 1933~1934년에 걸친 일본 東亞考古學會의 발굴 조사와 1963~1964년에 걸친 조중공동 고고학 발굴대의 발굴 조사이다. 발굴 보고서는 전자의 경우 「東京城」(東亞考古學會, 1939)으로, 후자의 경우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 1963~1965」(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및 「六頂山與渤海鎮」(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으로 각각 간행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는 성내의 각 遺構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가 발표되고 있다.

## 2. 上京城의 성립 과정

### 1) 上京 遷都 및 還都의 배경

고구려 멸망 이후 많은 遺民이 唐나라 內地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靺鞨族과 함께 遼西지역의 營州(중국 遼寧省 朝陽)에 거주하였다. 발해의 건국을 주도한 大祚榮 집단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대조영을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은 696년 5월 영주에서 契丹人 李盡忠의 반란을 계기로 일차로 遼東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당나라는 이진충의 난을 진압한 후 대조영 집단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天門嶺(중국 吉林省 哈達嶺)에서 대패하였다. 이 무렵 契丹과 奚가 突厥에 복속된 탓에 당나라는 더 이상 대조영 집단을 토벌할 수 없었다.

천문령 전투에서 승리한 대조영 집단은 松花江을 건너 牧丹江 상류의 東牟山에 성을 쌓고 정착하였다.<sup>2)</sup> 이곳은 현재 중국 吉林省 敦化市 賢儒鄉 城山子村的 城山子山城으로 비정된다. 그런데 城山子山城은 山城으로서 수도의 방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주공간으로서 平地城이 수반되었다. 성산자산성과 결합된 평지성은 종래 敖東城(산성에서 북동쪽으로 15km)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永勝遺蹟(산성에서 동쪽으로 5km 떨어진 牧丹江 너머)이 주목되고 있다.<sup>3)</sup> 이처럼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형태는 고구려식 방어체계의 특징이었다.

발해가 이곳에서 건국하게 된 까닭은 기본적으로 과거 고구려의 주요 지역(平壤城 일대, 遼東 지방, 國內城 지역, 夫餘城 지역)이 장기간 전란과 멸망 이후의 격동으로 피폐해지고, 그 주민은 대규모로 당나라 內地로 강제 이주되어 戶口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는 새로운 국가체가 건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4)</sup>

이후 발해는 이곳에서 顯州→上京→東京을 거쳐 다시 上京으로 천도하였다. 그 과정을 다음 사료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자.

2) 『新唐書』 권219, 列傳 144, 渤海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 高麗滅 率衆保挹婁之東牟山 地直營州東二千里 … 築城郭以居 高麗遺殘歸之”

3)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83~87쪽.

4) 盧泰敦, 1981 『渤海 建國의 背景』 『大邱史學』 19, 8쪽.

가. 天寶(742~756) 말년에 欽茂[文王]가 上京으로 (수도를) 옮겼으니, (이곳은) 바로 舊國에서 300리 떨어진 忽汗河의 동쪽이다.<sup>5)</sup>

나 - ① 압록강 하구에서 배를 타고 100리 정도 가다가, 다시 작은 배를 타고 동북쪽으로 30리를 거슬러 올라가 泊汜口에 이르면 발해의 국경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50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丸都縣城에 이르니 (이곳은) 옛 고구려의 수도이다. 다시 동북쪽으로 20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神州에 이른다. (여기서) 다시 육로로 400리를 가면 顯州에 이르니 天寶年間에 (발해)왕이 도읍하던 곳이다. 다시 정북방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600리를 가면 발해의 王城에 이른다.<sup>6)</sup>

② 顯州는 발해국에 있다. 皇華四達記에 의하면 당나라 天寶 이전에 발해국이 도읍한 곳이다.<sup>7)</sup>

사료 (가)에 보이는 舊國은 발해의 첫 도읍지로서 東牟山의 城山子山城과 인근의 평지성인 永勝遺蹟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756년 무렵 舊國에서 곧바로 上京으로 천도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사료 (나)-①과 ②에서 보는 것처럼 天寶年間 또는 天寶 以前에 顯州에 도읍한 기사와 모순이 된다. 그래서 종래에는 舊國과 顯州를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구국에서 상경까지의 거리가 300리라는 (가)의 기록과 현주에서 상경까지의 거리가 600리라는 (나)-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국과 현주는 다른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顯州는 中京顯德府가 관할하는 6주의 하나이므로,<sup>8)</sup> 이때의 수도는 중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경의 소재지로 알려진 吉林省 和龍市 西古城의 발굴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sup>9)</sup> 결국 (가)의 기록은 상경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구국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10)</sup>

5) 『新唐書』 권219, 列傳 144, 渤海 “天寶末 欽茂徙上京 直舊國三百里忽汗河之東”

6) 『新唐書』 권43下, 志 33下, 地理 7下, 河北道 “自鴨綠江口舟行百餘里 乃小筋泝流東北三十里至泊汜口 得渤海之境 又泝流五百里 至丸都縣城 故高麗王都 又東北泝流二百里 至神州 又陸行四百里 至顯州 天寶中王所都 又正北如東六百里 至渤海王城”

7) 『武經總要』前集, 권16下 “顯州 渤海國 按皇華四達記 唐天寶以前 渤海國所都”

8) 『新唐書』 권219, 列傳 144, 渤海 “以肅慎故地爲上京 曰龍泉府 領龍·湖·渤三州 其南爲中京 曰顯德府 領盧·顯·鐵·湯·榮·興六州”

따라서 698년 舊國에서 건국한 발해는 756년 무렵 상경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한 차례 현주로 천도하였던 것이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료 (나)-①의 天寶年間 혹은 (나)-②의 天寶 以前이라는 두 가지 기록이 단서를 제공한다. 천보년간(742~756)은 文王(737~793) 전반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사료 (가)의 경우 천보 말년에 현주에서 상경으로 천도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나)-①은 그 이전 즉 천보년간에는 발해의 수도가 현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현주로 천도한 시기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천보 이전부터 현주가 수도였음을 전하는 (나)-②에 따르면 천도 시기는 그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天寶 以前은 바로 開元年間(713~741)으로 武王代(718~737)와 문왕 초기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무왕대는 발해가 주변으로 활발하게 영역을 확장하던 시기였다. 이로 인하여 黑水靺鞨과 新羅가 당나라와 결탁하게 되었다. 특히 726년 당나라가 흑수말갈에 靺鞨州를 설치하자, 발해 내부에서 흑수말갈 토벌을 둘러싸고 武王 大武藝와 그 아우 大門藝간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다. 결국 대문예가 당나라로 망명하고, 무왕은 집요하게 대문예의 처벌을 요구하다가 732년 9월 당나라의 登州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sup>11)</sup>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당시 발해의 수도가 규모가 협소한 舊國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무렵을 전후한 시기에 현주로 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sup>12)</sup>

이처럼 무왕은 732년을 전후한 시기에 현주로 천도하였지만, 이후 즉위한 문왕은 사료 (가)에서 보듯이 천보 말년인 756년 무렵 다시 上京으로 천도하였다. 그런데

9) 그런데 중경의 首州는 顯州가 아니라 盧州로 기록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수도 顯州는 上京 천도에 즈음하여 中京이란 명칭이 붙게 되었지만, 나중에 5京制가 정비되면서 중경의 수주는 盧州로 교체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駒井和愛). 이에 따르면 5京制에서의 中京(=盧州)은 통설대로 西古城이지만, 초기의 중경(=顯州)은 서고성이 아니라 좀더 북쪽의 河南屯古城으로 비정하고 있다(秋山進午). 그러나『遼史』地理志 盧州條에 중경현덕부에 관한 아무런 기록도 없다는 점에서, 중경현덕부는 시종일관 顯州에 있었다고 보는 반론도 제기되었다(河上洋, 1989 『渤海の交通路と五京』 『史料』 72-6, 84~88쪽).

10) 宋基豪, 앞의 책, 95쪽.

11) 김중복, 1996 『渤海 初期의 對外關係』 『古朝鮮과 夫餘의 諸問題』 『韓國古代史研究』 9), 신서원.

12) 丹化沙, 1983 『渤海歷史地理研究情況述略』 『黑龍江文物叢刊』 1983-1; 崔茂藏 編譯, 1988 『渤海의 起源과 文化』, 藝文出版社, 133~134쪽. 한편 송기호도 무왕대에는 현주→상경→동경으로 두 차례나 천도하였으므로, 舊國에서 顯州로 천도한 것은 문왕 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았다(宋基豪, 앞의 책, 97쪽). 朱國忱·魏國忠은 시기를 좀더 중경 천도를 대문에 망명 사건과 연관하다고 보았다. 즉 西北의 舊國에서 東南의 中京으로 천도한 것은 不測의 사태에 대한 예방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천도 시기를 대문에 망명 사건이 일어난 뒤 734년 이전으로 단정하였다(朱國忱·魏國忠, 1984 『渤海史稿』, 黑龍江省文物出版編輯室, 59쪽).

바로 그 직전인 755년 11월에 당나라에서는 安史의 亂이 발발하여 이후 8년간 혼란의 상황에 빠졌다. 이를 계기로 邊境에만 설치된 藩鎮(節度使)이 內地로 확산되었다. 곧 邊境藩鎮에서 內地藩鎮의 시기로 전환된 것이다. 이 때문에 종래에는 상경 천도의 원인으로 안사의 난에 대한 대비라는 대외적 요인이 강조되었다.<sup>13)</sup>

安祿山은 일찍이 당나라의 발해 방면 책임자로서 신라와 함께 발해를 견제하였기 때문에,<sup>14)</sup> 발해는 안사의 난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발해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이 대비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아,<sup>15)</sup> 발해 또한 안록산이 동쪽으로 자신을 공격해 올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발해가 건국 이래 60여년 동안 동북쪽으로 상당히 발전하였으므로, 통치의 중심지도 이쪽 방면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sup>16)</sup> 특히 발해는 무왕대에 흑수말갈 문제로 당과 충돌이 있었다. 따라서 문왕대 초반에 拂涅·越喜·鐵利靺鞨을 복속한 뒤에는 흑수말갈의 복속이 최대 과제였을 것이다. 여기서 발해의 배후에 위치한 黑水靺鞨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흑수말갈은 732년 발해의 등주 공격 이후 10년간 대당교섭을 중단하였다. 문왕 즉위 이후 발해와 당나라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흑수말갈은 다시 741~752년間に 7

- 13) 孫玉良, 1983 「渤海遷都淺議」 『北方論叢』 1983-3; 1988 「발해국사」 1(김정배·유재신 편), 정음사.  
 劉曉東·魏存成, 1987 「渤海上京城營築時序與形制淵源研究」 『中國考古學會第六次年會文集』, 文物出版社; 1997 「高句麗 渤海研究集成」, 渤海卷(2)(孫進己·孫海 主編), 哈爾濱出版社.  
 林相先, 1988 「渤海的 遷都에 대한 考察」 『清溪史學』 5.  
 방학봉, 1992 「발해는 무엇 때문에 네 차례나 수도를 옮겼는가」 『白山學報』 39.  
 宋基豪, 앞의 책, 98~99쪽.
- 14) 『舊唐書』 권9, 本紀 9, 玄宗 下 「開元 二十九年(741) 秋七月 乙卯 幽州節度副使安祿山爲營州刺史 充平盧軍節度副使 押兩番·渤海·黑水四府經略使」  
 『文苑英華』 권471, 翰林制詔 52, 蕃書 4, 勅新羅王金興光書 “近又得思蘭表稱 知卿欲於涇江置戍 既當渤海衝要 又與祿山相望 仍有遠圖 固是長策” 이 칙서의 작성연대는 개원 23년(735) 늦봄으로 추정된다(石井正敏, 1984 「張九齡作 “勅渤海王大武藝書” について」 『朝鮮學報』 112, 78쪽).
- 15) 『續日本紀』 권21, 天平寶字 2年(758) “十二月 戊申 “遣渤海使小野朝臣田守等 奏唐國消息曰 天寶十四載歲次乙未(755) 十一月九日 御史大夫兼范陽節度使安祿山反 舉兵作亂 … 於是 勅大宰府曰 安祿山者 是狂胡攷豎也 違天起逆 事必不利 疑是不能計西 還更掠於海東 古人曰 蜂蟻猶毒 何況人乎 其府帥船王 及大貳吉備朝臣眞備 俱是碩學 名顯當代 簡在朕心 委以重任 宜知此狀 預設奇謀 縱使不來 儲備無悔 其所謀上策 及應備雜事 一一具錄報來”
- 16) 宋基豪 禹길(王承禮 지음), 1988 「발해의 역사」, 翰林大學 아시아文化研究所, 81쪽. 이밖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경 일대는 목단강 중류에 위치하여 토질이 비옥하고 기후가 비교적 온난하며 평야가 넓어 농경에 적합한 곳이었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곳은 산과 물이 있고 지세가 험하며 교통이 편리하여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다. 단 왕송례는 중경에서 천도한 것이 아니라 舊國에서 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례 당에 입공하였다. 발해로서는 당나라와 흑수말갈의 접근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경 천도 후 문왕 말기까지 흑수말갈의 대당조공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상경 천도를 통해 흑수말갈의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sup>17)</sup> 이렇게 볼 때, 상경 천도의 목적을 안사의 난에 대한 대비로만 국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sup>18)</sup> 오히려 발해는 당나라의 약화를 틈타 흑수말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舊國→顯州→上京으로의 천도 과정에서는 발해의 영역 확장에 따른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천도는 안사의 난 이후 당나라의 대외적인 규제력이 약화된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발해사의 전개 과정에서 특히 주목된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貞元年間(785~805)에 (수도를) 동남쪽의 東京으로 옮겼다. 欽茂가 죽자 멋대로 文王이라고 시호를 올렸다. (문왕의) 아들 宏臨이 일찍 죽어 (문왕의) 族弟인 元義가 즉위하였는데, 1년만에 (성격이) 의심받고 포악하여 國人들이 그를 죽이고 宏臨의 아들 華璵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上京으로 환도하고 연호를 中興으로 고치고는 죽었으니 시호를 成王이라 한다.<sup>19)</sup>

이 사료에서는 東京 遷都에 대해 貞元年間(785~805)이라고만 언급하였지만, 보통 정원 초반인 785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문왕 말기에 해당된다. 동경 천도 이후 10년도 못되어 문왕이 죽자(793) 嫡孫 大華璵 대신 문왕의 族弟 大元義가 즉위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격이 의심받고 포악하다는 이유로 1년만에 발해의 지배층인 國人에게 살해되었고, 대화여가 成王으로 추대되었다. 성왕은 즉위와 동시에

17) 劉曉東·魏存成, 1987(1997) 앞의 글, 575쪽.

18) 한편 상경 천도의 원인을 安史의 亂에 대한 대비로 보는 견해에서는 그 근거로 『遼史』 권75, 列傳 5, 耶律羽之의 ‘(耶律)羽之…太宗即位 上表曰 渤海昔畏南朝 阻險自衛 屈忽汗城’을 들기도 한다. 즉 여기서의 南朝는 당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해는 이 무렵 당에서 발발한 安史의 亂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忽汗城(上京)으로 천도하였다는 것이다(宋基燾, 앞의 책, 98~99쪽). 그런데 발해가 ‘昔畏南朝 阻險自衛’ 하였던 것은 건국 과정을 전하는 『舊唐書』 권199下, 列傳 149下, 渤海靺鞨의 ‘祚榮與靺鞨乞四比羽 各領亡命東奔 保阻以自固’ 및 『新唐書』 권219, 列傳 144, 渤海的 ‘保太白山之東北 阻奧婁河 樹壁自固’을 축약하여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19) 『新唐書』 권219, 列傳 144, 渤海 ‘貞元時 東南徙東京 欽茂死 私諡文王 子宏臨早死 族弟元義立一歲 猜虐 國人殺之 推宏臨子華璵爲王 復還上京 改年中興 死 諡曰成王 欽茂少子嵩鄰立 改年正曆 有詔授右驍衛大將軍 嗣王 死 諡康王’

上京으로 환도하고 곧바로 사망하였다. 성왕 사후 즉위한 康王은 15년간 재위하였다. 그러나 康王 사후에 왕위는 11년간 定王·僖王·簡王 3대에 걸친 형제상속을 거쳐, 王系를 달리하는 宣王에게 넘어갔다.

이처럼 文王의 사망에서 宣王의 즉위(818)까지 25년간은 6왕이 즉위와 사망을 되풀이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시기는 내분기라고 할 만큼<sup>20)</sup> 중요한 정치적 격변기이다. 따라서 동경 천도와 상경 환도는 그 일차적인 원인을 정치적 배경과 관련시켜 볼 필요가 있다.<sup>21)</sup>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발해는 무왕대에 대내외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732년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지배체제의 미비, 대외적으로 발해의 지원세력인 突厥의 세력 약화 및 당나라와 결탁한 新羅의 위협 등의 이유 때문에 對唐强硬策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 즉위한 문왕은 대당관계의 개선을 통해 대외적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당나라의 율령제를 근간으로 왕권 강화와 체제 정비를 추진하였다. 756년 무렵의 상경 천도 이후부터 중앙통치기구와 지방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774년 大興에서 寶曆으로의 改元은 이러한 추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대외노선의 변경과 왕권을 중심으로 한 체제 정비는 지배세력의 재편을 수반하였다. 785년 무렵 동경 천도를 즈음해서 연호는 寶曆에서 다시 大興으로 복구되었다. 그리고 文王 사후에 族弟 大元義가 즉위하는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동경 천도와 연호 복구는 왕권 강화와 체제 정비 과정에서 소외된 정치세력의 반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문왕대 체제정비 과정에서 성장한 ‘國人’ 세력이 大元義를 살해하고, 문왕의 嫡孫 大華璵를 成王으로 추대함과 동시에

20) 宋基豪, 앞의 책, 20쪽 및 139~145쪽.

21) 종래 동경 천도와 관련해서는, 문왕 말기에 국인층의 대두가 현제화함에 따라 文王이 국인층의 간섭을 배제하고 왕권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천도한 것으로 보는 견해(酒寄雅志, 1979,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19~21쪽)와 문왕 후기 통치력이 약화됨에 따라 大元義系가 727년 對日通交 이후 교섭창구인 東京지역에서 부를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왕권 약화와 세력 강화를 위해 천도를 실행했으며, 따라서 대원의계는 東京 지역에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고 大華璵와 國人은 上京 지역에 유리한 기반을 가졌다고 본 견해(林相先, 1988, 『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 『清溪史學』 5, 44~46쪽)가 있다. 이밖에 상경성의 개편·확대를 위하여 임시로 옮겼다는 견해(秋山日出雄, 1988 『古代宮室發展段階の初歩的研究——渤海諸宮を手掛りとして——』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 9, 吉川弘文館, 1988, 627쪽)도 있다.



상경으로 환도하였다.<sup>22)</sup>

이상에서 네 차례의 발해의 천도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각의 도읍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舊國(698년)——顯州(732년 전후)——上京(756년 무렵)——東京(785년 무렵)——上京(794년)

이상과 같이 발해 전기의 도읍기간은 東京을 제외하고는 舊國, 顯州, 上京 모두 30년 정도라는 공통성을 보인다. 지금까지 천도 배경에 대해서는 주로 각 시기의 대내외적인 정세에 따라 해석하였지만, 도읍 기간의 공통성은 발해 지배층이 특정한 의도하에 정기적으로 천도를 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sup>23)</sup>

발해는 武王代와 文王 前半期에 주로 동북방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발해의 영역은 크게 보면 平壤 일대와 遼東 지역을 제외한 고구려 영역과, 北流 松花江 以東과 東流 松花江 및 黑龍江 以南 지역이다. 즉 과거 고구려보다 동북방으로 영역이 치우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고구려 이래로 半農半獵을 중심으로 하는 靺鞨族의 거주지였다. 그런데 발해의 지배층은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것도 아니고, 또 사회경제적으로 반농반렵적 특성을 가진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따랐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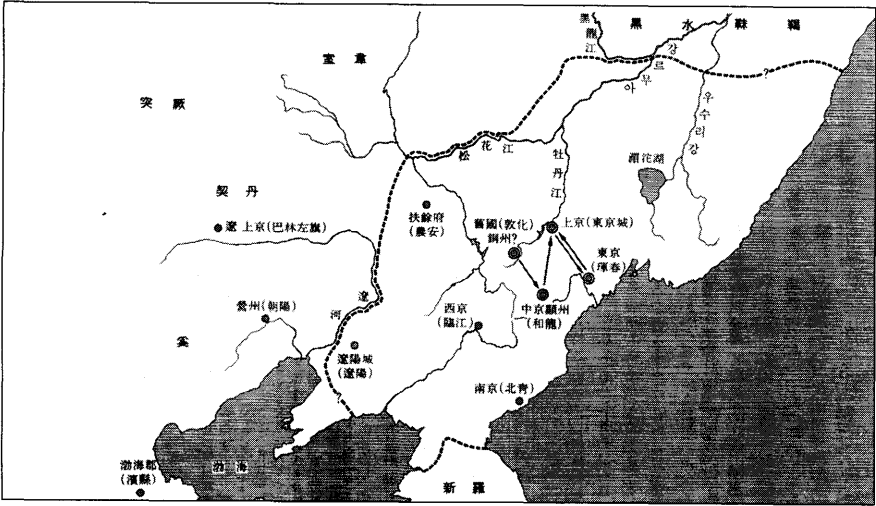
따라서 발해 전기의 빈번한 천도는 지배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체가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파악된다. 宣王·大彝震代에 5京 15府 62州로 정비된 발해의 지방통치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5京 가운데 3京이 발해 전기의 수도였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경으로 환도한 이후 다시는 천도가 없었던 사실은 文王代부터 추진된 체제정비가 내분기를 거치면서 宣王代 이후로 확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은 상경성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

22) 김종복, 2001 「발해 폐왕·성왕대 정치세력의 동향」 『역사와 현실』 41.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경은 바닷가에 가깝기 때문에 동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의 영향을 받아 농업생산량이 몹시 감소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견해도 있다(방학봉, 앞의 글, 45쪽).

23) 三上次男은 동경천도까지 왕은 치세기간에 수도를 옮기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였다(三上次男, 1967 「渤海國の都城と律令」 『日本の考古學』, 河出書房; 1990 「高句麗と渤海」, 吉川弘文館, 161쪽)

〈그림 1〉 발해 강역과 천도 과정



전자 : 『渤海政治史研究』(宋基豪, 1995, 242쪽)

## 2) 상경성의 성립-규모의 확대와 구조의 변화

上京城은 黑龍江省 寧安市에서 서남쪽으로 약 35km, 東京城鎮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牡丹江 중류의 東京城 분지의 충적평원에 있다. 상경성의 서남쪽에 鏡泊湖가 있으며 여기서 흘러오는 목단강이 성의 서벽 밖으로 약 1km 정도 흐르다가 동쪽으로 꺾이는데, 성의 북벽에서 3km도 안된다. 이곳은 토지가 비옥하고 관개에 편리하며 주위가 산으로 둘러 막혀 자연의 요새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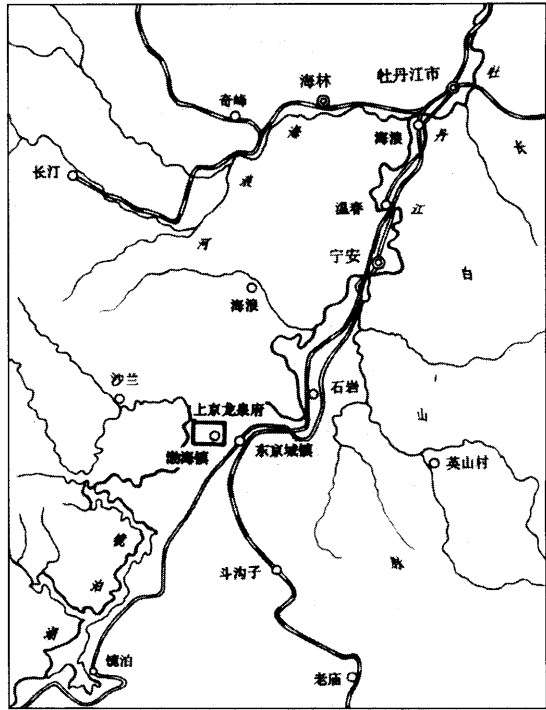
상경성은 外城, 宮城, 皇城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그 규모를 간단히 살펴보자.<sup>24)</sup> 外城은 동서로 긴 장방형인데, 동벽은 3,358.5m, 서벽은 3,406m,<sup>25)</sup> 남벽은 4,586m, 북벽(凸형)은 4,946m로 성벽은 속에 돌을 쌓고 겉에 흙으로 덮은 土石混築이다. 성의 총둘레는 162,965m이다.

宮城은 외성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며 크기는 동벽 900m, 서벽 940m, 남벽

1,050m, 북벽 1,906m의 장방형이며,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른 돌로 쌓았다. 궁성은 중심구역과 북쪽구역, 동쪽구역 및 서쪽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나뉜다.<sup>26)</sup> 이중 가장 중요한 곳은 중심구역으로, 그 크기는 동서벽은 720m, 남북벽은 620m이다. 중심구역은 다시 중구, 동구, 서구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중구에 7개의 궁전터가 있다.

皇城은 큰 길(제5호 도로; 너비 92m)을 사이에 두고 궁성의 남쪽에 위치하며, 크기는 동벽 447m(제5호 도로 포함), 서벽 454m, 남벽 1,045m, 북벽 1,050m로 동서로 긴 장방형이며, 성벽은 현재 북벽만 남아 있는데, 돌로 쌓은 것이 궁성의 벽과 같다.<sup>27)</sup> 황성은 동서로 3개의 소구역으로 나뉘는데, 동서 두 구역은 동서 413m, 남북 355m로 서로 크기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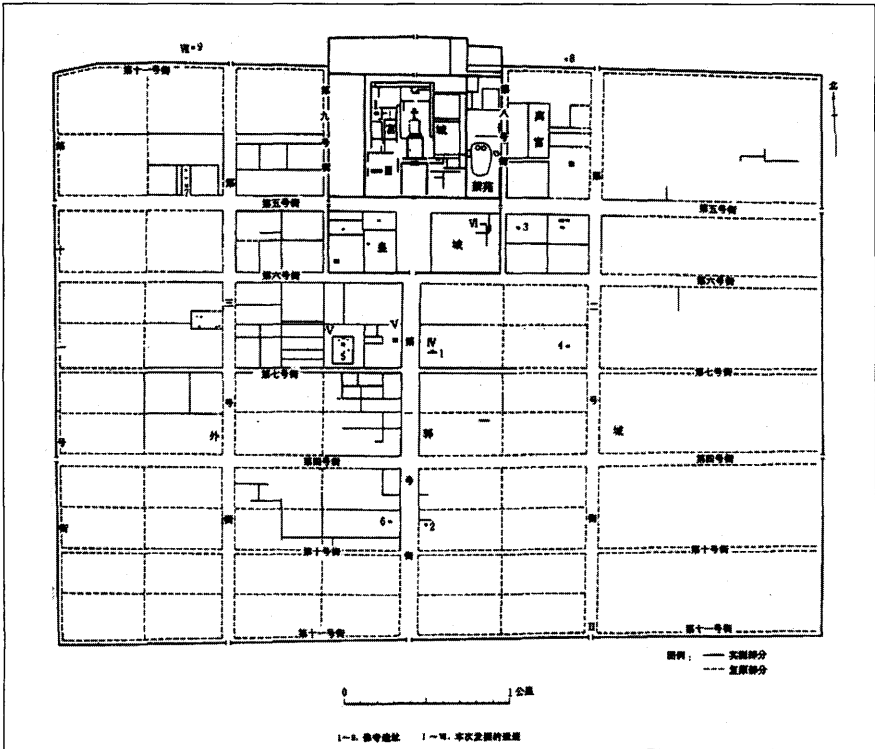
〈그림 2〉 상경용천부 위치도



전거 : 『六頂山與渤海鎮』(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1997, 43쪽)

24) 이하 상경성을 비롯한 발해의 도성에 대해서는 주영현, 1971,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및 宋基燾, 1989 『발해城址의 조사와 연구』 『韓國史論』 19, 국사편찬위원회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25) 조중공동 고고학발굴대, 앞의 책, 165쪽,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간행된 공동발굴 보고서에서는 서벽의 길이가 3,398m로 되어 있다(『六頂山與渤海鎮』, 45쪽).  
 26) 대체로 중국학계에서는 중심구역만 皇城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皇城이 宮城을 둘러싸고, 外城이 皇城을 둘러싼 3重城制로 파악한다.  
 27) 조중공동 고고학발굴대, 앞의 책, 172쪽 및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앞의 책, 51~52쪽. 그런데 황성의 경우 외성과 같이 토석혼축성벽이라고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부경만 외, 1992 『발해국의 서울 상경성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발해사연구』 3, 212쪽 및 장상렬, 1998 『발해상경용천부터에 표현된 도시계획방법과 그 고구려적성격』 『조선고고연구』 1998-2, 29쪽). 어디서 이런 차이가 연유하는지 모르겠다.

〈그림 3〉 상경성 평면도



전거 : 『六頂山與渤海鎮』(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1997, 48쪽)

그런데 이러한 규모의 상경성은 언제 완성된 것일까. 발해 전기에 30년마다 천도가 행해졌던 점을 고려하면, 처음 천도한 756년 무렵에 이러한 규모가 곧바로 조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발해는 794년 상경 환도 이후 내분기를 극복하고 海東盛國을 구가하였기 때문에, 상경성의 구조와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점에서 먼저 상경 천도를 전후한 시기의 수도였던 중경과 동경의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中京은 吉林省 和龍市 西古城으로 비정된다. 성의 남쪽에는 두만강의 지류인 海蘭

강이 서북쪽에서 동남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곳은 頭道(溝) 평야의 서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곳으로, 두도평야는 해란강 유역의 평야 중에서 가장 크다. 주변에서 眞孝公主무덤으로 유명한 龍頭山 古墳群과 순금제 장식들이 발견된 河南屯 고분군, 北大 고분군들이 발견되었다.

성은 土城으로서 外城, 內城으로 이루어졌다. 외성의 동서벽은 각각 약 729m, 남북벽은 각각 628m로 총둘레는 약 2,714m이다.<sup>28)</sup> 내성은 동서의 길이 약 190m, 남북의 길이 약 310m로 총둘레는 약 1,000m이다. 내성의 중·북부에서 모두 5개의 건축지가 확인되었다.

東京은 吉林省 琿春市 八連城으로 비정된다. 이곳은 琿春河 충적평야 지대의 서쪽 끝지점으로 琿春市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져 있다. 팔련성에서 서쪽으로 3.5km 떨어진 곳에는 두만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곳의 지세는 평탄하고 주위에는 여러 산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동해에 연하고 있다.

성은 土城으로서 方形에 가까우며 外城과 內城으로 이루어졌다. 외성은 동벽 약 739m, 서벽 약 728m, 남벽 약 612m, 북벽 약 696m로 둘레는 약 2,755m정도이다.<sup>29)</sup> 성안은 다시 북쪽구역, 중심구역(3구역), 동쪽구역(2구역), 서쪽구역(2구역)으로 나뉜다. 『琿春縣誌』에는 성안에 북대성과 7개의 작은 성 등 모두 8개의 성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八連城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북대성은 북쪽구역을 말하고 나머지 7개의 작은 성은 중심구역의 3개의 소구역과 동서구역의 4개의 소구역을 의미한다. 1942년 齋藤甚兵衛의 발굴 조사에 따르면, 중심구역의 3구역(北城, 中城, 南城)의 각각의 남문은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그 중 북성에는 궁전터로 추정되는 기단이 발견되었다.<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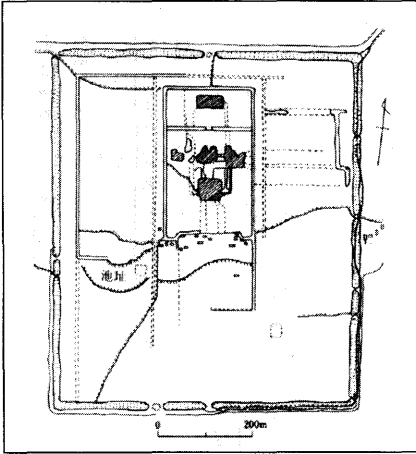
한편 이 지역에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현재의 외성 남벽 밖에 동서로 긴 또 하나

28) 주영현은 외성, 중성, 내성으로 이루어진 3중성으로 보았다(주영현, 앞의 책, 17쪽). 한편 齋藤甚兵衛는 여기서 말하는 외성은 실은 당시 중경의 내성에 해당되고 그 밖에 외성이 따로 있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송기호, 1989 앞의 글, 435쪽).

29) 주영현, 앞의 책, 15쪽. 한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벽 721km, 서벽 741km, 남벽 705km, 북벽 728km로 보는 견해도 있고(王俠, 1982 『琿春의渤海遺迹與日本道』, 『學習與探索』 1982-4; 1988 『발해국사』(1)(김정배·유재신 편). 정음사에 재수록, 36쪽), 동벽 746km, 서벽 735km, 남벽 701km, 북벽 712km로 보는 견해도 있다(吉林省文物誌編委會, 1984 『琿春縣文物誌』; 劉曉東·魏存成, 1987(1997), 앞의 글, 주 2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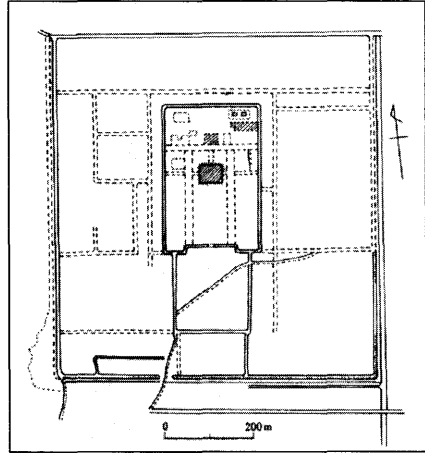
30) 송기호, 1989, 앞의 글, 430쪽.

〈그림 4〉 中京 西古城 遺蹟 實測圖



전거: 「高句麗と渤海」(三上次男, 1990, 173쪽)

〈그림 5〉 東京 八連城 遺蹟 實測圖



전거: 「高句麗と渤海」(三上次男, 1990, 171쪽)

의 성벽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외성은 내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sup>31)</sup> 그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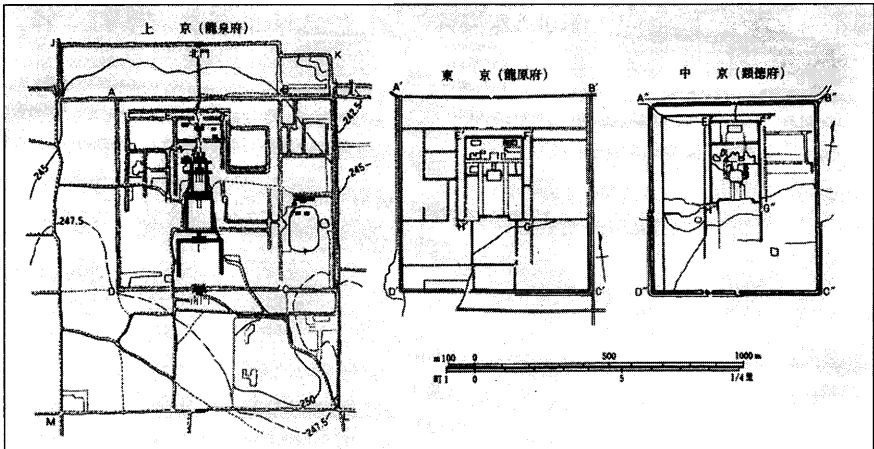
아무튼 현존 상경성의 규모가 756년 천도 당시의 실제 규모라고 한다면, 이는 동시기의 中京이나 東京에 비해 너무 크다. 오히려 中京의 外城(동서벽 729m, 남북벽 628m)의 경우 상경성 宮城의 중심구역(동서벽 720m, 남북벽 620m)과 규모가 비슷하고, 동경의 外城(동서벽 약 740m, 남북벽 약 706m)은 이보다 조금 크다. 또한 중경과 동경의 경우 내성에 세로 선상으로 궁전터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배치된 구조는 상경성 궁성 내부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中京, 東京, 上京의 실측도를 동일 축척으로 비교해 보면 분명하다.<sup>33)</sup>

31) 한편 八連城의 일명인 半拉城의 ‘半拉’은 ‘반쪽, 절반’의 뜻이므로, 이 명칭은 결국 옛 성의 절반만 남았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劉曉東·魏存成, 1987(1997) 앞의 글, 575쪽)도 있지만, 八連(bālián)과 半拉(bàn lā)은 동일음에 대한 한자표기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2) 東京城에 대해 鳥山喜一은 바깥의 一郭을 外城, 안쪽의 것을 內城으로 보았다. 반면 齋藤優는 전자를 內城으로 보고, 그 바깥에 條坊制에 의해 구획된 광대한 外城이 존재했다고 추정하였다. 三上次男도 내성 밖의 사원의 배치상황으로 볼 때 齋藤優의 주장은 맞지만, 외성의 윤곽은 명확치 않다고 보았다(三上次男, 앞의 글, 170쪽).

33) 秋山日出雄, 앞의 글, 617쪽 및 劉曉東·魏存成, 1987(1997), 앞의 글, 574쪽.

〈그림 6〉 3京 比較圖



전거 :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 9(秋山日出雄, 1988, 617쪽)<sup>34)</sup>

이렇게 볼 때 756년 무렵의 상경성은 그 규모가 현존 상경성의 궁성 내 중심구역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경과 동경의 내성 내부에 궁전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에서 볼 때, 당시 상경성의 내성은 중심구역 내부에 7개의 궁전터가 있는 중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현존 상경성 궁성 안에 있는 7개의 궁전터 가운데 제1·2궁전터에 해당되는 것을 중경과 동경의 내성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2궁전은 처음 천도하였을 당시에 조영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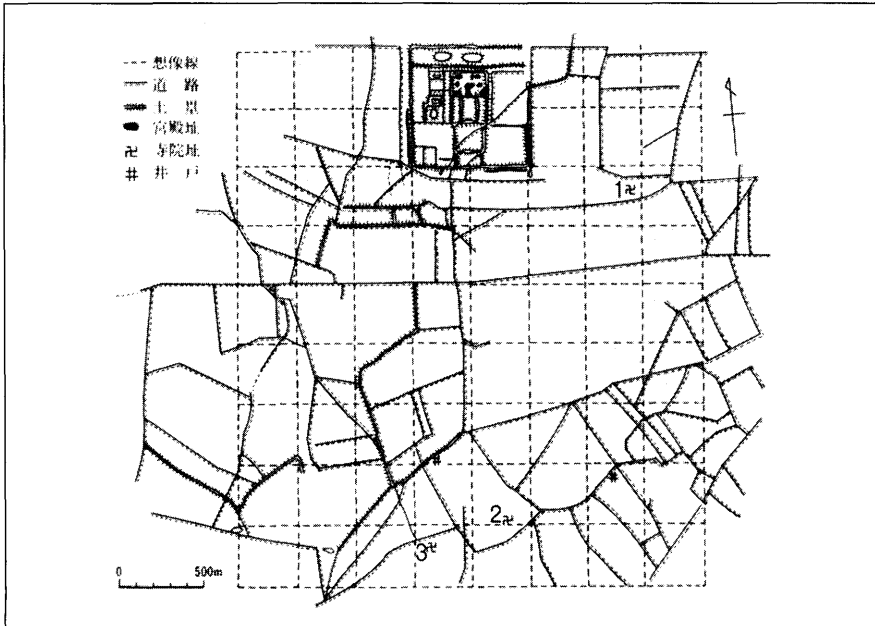
34) 일제시대의 발굴보고서인 『東京城』에서는 궁성 남문터를 제1궁전터로 보아, 상경성 내에는 모두 6개의 궁전이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秋山日出雄은 이에 근거하여 3경 비교도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제1궁전터로 간주한 궁성 남문의 기단 양쪽 끝 동서벽에서 3m 떨어진 곳에는 남북으로 놓인 3개의 장방형 기둥구멍(柱洞)이 있다. 또 정문과 함께 세워진 결문 기단 위에도 3개의 기둥구멍이 있다. 이러한 기둥구멍들은 그 위치와 짜임새로 보아 門樓에 사용된 永定柱로 보인다(부경만 외, 1992 『발해국의 서울 상경성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 216 쪽). 따라서 1960년대 조중공동 발굴 이후 상경성 내의 궁전은 궁성 남문을 제외한 나머지 5개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따라 秋山日出雄의 3경 비교도를 수정하였다.

35) 秋山日出雄, 1988 앞의 글, 625~626쪽 및 劉曉東·魏存成, 1991(1997) 앞의 글, 579~581쪽.  
한편 최근에는 顯州·中京 별개 지역설의 연장선상에서 西古城이 현주 도읍기의 도성은 아니라고 보아, 劉曉東·魏存成 같은 파악 방식을 비판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현주나 동경에 수도가 있었을 때 상경과 같은 궁전 배치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상경의 건물 배치가 중경과 동경에 응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발해의 대표적 유물인 蓮花文 瓦當을 형식 분류한 결과, 西古城(中京)과 八連城(東京)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은 東京城(上京)에서

이처럼 756년 무렵의 상경성의 규모가 중경이나 동경과 같았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규모가 확대되고 구조에 변화가 생겨났을까. 그 실마리는 아무래도 상경 환도 이전의 수도였던 동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東京 八連城 바깥에 다시 外城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팔련성 남벽의 바깥에서 발견된 3개의 절터의 위치가 상경성 황성 밖 외성 안의 절터 위치와 비슷한 점에서 추정된다. 즉 팔련성의 1호·2호·3호 절터는 상경성의 4호·2호·6호 절터와 위치가 비슷하다. 이는 우연의 일치라기보다 동경과 상경이 대체로 동일한 도시계획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즉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현존 팔련성 바깥에 다시 里坊制를 갖추고 외성으로 둘러쌓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문왕 말기에 현존 상경성의 규모의 도성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의미한다.<sup>36)</sup>

〈그림 7〉 東京 八連城 遺蹟 里坊 想定圖



전거 : 『高句麗と渤海』(三上次男, 1990, 172쪽)



그러나 문왕 사후 大元義의 즉위, 그리고 國人에 의한 피살과 成王의 추대라는 정치적 갈등을 거친 후, 성왕은 상경으로 환도하였다. 따라서 동경성의 외성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동경 천도기에 계획에만 그쳤던 외성은 상경 환도 후 언제 실현되었을까. 이 점에서 문왕 사후(793)에서 宣王 즉위(818)까지의 25년간의 내분기 가운데 15년간 재위하였던 康王대가 주목된다. 강왕대는 대내외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내분기 가운데 상대적 안정기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따라서 문왕 말년에 수립된 외성 설치 계획은 정국이 안정된 강왕 때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곧바로 현존 상경성의 외성 규모로까지 확대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都城은 宮城, 皇城, 外城 순서로 건축되었다는 감안한다면, 강왕대에는 현존 상경성의 궁성과 황성을 포함하는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을 것이다.<sup>38)</sup>

日本の 경우도 초기에는 외성 없이 宮室만 존재하는 宮都의 형태로 있다가, 律令國家의 등장과 함께 條坊制을 수반하는 都城制가 확립되었다. 당나라의 낙양성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낙양성은 처음에 州都였는데, 國都로서 완성된 것은 則天武后의 永昌원년(689)이었다. 때문에 최초의 낙양성은 이른바 皇宮 부분만 있었고, 그 주위에 皇城이 조영되고 다시 그 주위에 坊里가 건축됨에 따라 비로소 國都의 체제를 갖추었던 것이다.<sup>39)</sup>

출토된 것보다 시기적으로 늦다고 하는 점을 들고 있다(田村晃一, 2000 『渤海瓦當文様に關する若干の考察』 『靑山史學』 19, 10~13쪽). 나아가 상경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의 분석 결과 제2궁전터에서 나온 것이 가장 오랜 시기에 속하기 때문에, 제2궁전의 조영 시기가 756년 무렵의 상경 천도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田村晃一, 2002 『渤海瓦當再論』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47집 4분책, 172쪽). 그러나 이러한 입론의 근거가 되는 顯州·中京 별개 지역설에 대한 반론도 있고, 제2궁전터에서 출토된 와당의 수치가 명확치 않은 점과 제1궁전터의 와당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아직 따르기는 어렵다.

36) 李殿福, 1991 『高句麗·渤海의考古と歴史』, 學生社, 98~99쪽.

37) 金鍾福, 2002 『渤海 政治勢力의 推移 研究--對唐政策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34~142쪽.

38) 앞서도 지적했듯이 중국학계에서는 皇城이 宮城을 둘러싸고, 外城이 皇城을 둘러싸는 3重城制로 파악하고 있다. 劉曉東·魏存成은 1987(1997), 앞의 글에서는 동경 팔련성에 外城(2重城)이 설치되지 않은 점에서 康王代에 상경에 2重城(外城은 현존 상경성의 皇城)이 설치되고, 3重城(현존 상경성의 外城)은 大彝震代에 설치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후에 발표한 글에서는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동경 팔련성 바깥에 계획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한 외성의 존재를 통해 이 시기에 이미 3重城의 制度는 마련되었고, 따라서 강왕대에는 상경에 3重城制가 실시되었다고 하였다. 단 이때의 3중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문왕대의 상경(현존 상경성의 궁성)의 바깥에 새로 외성(현존 상경성의 황성)을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劉曉東·魏存成, 1991 『渤海上京城主體格局의演變』 『北方文物』 1991-1; 1997, 『高句麗 渤海研究集成』 渤海卷(2)(孫進己·孫海 主編), 哈爾濱出版社에 재수록, 580쪽). 그런데 문제는 동경 도읍기에 계획된 3중성의 규모보다 강왕대 3중성의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왕대의 상경성은 3중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39) 秋山日出雄, 앞의 글, 616쪽.

발해는 宣王의 즉위로 내분기를 극복하고 이후 정국은 안정되어 海東盛國을 구가하게 되었다. 발해의 사방의 경계와 3省 6部등 중앙 통치기구와 5京 15府 62州 등 지방 통치제도가 대체로 宣王·大彝震代에 완성되었다.<sup>40)</sup> 이는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체제의 확립을 의미한다. 상경성의 확대와 함께 외성이 설치되었다면 이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동경 시대에 계획된 외성이 이때 비로소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궁성도 확대되고 그 아래에 황성이 새로이 설치되는 등 내성의 구조도 바뀌고, 그 바깥의 시가지를 정연한 도시계획에 따라 배치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내성 구조의 변화에 상응하여 궁성내에 새로운 궁전 즉 제1·2호 궁전도 이때 세워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乞乞仲象이 있어 遼水를 건너 스스로를 지키니 武后가 震國公에 봉하였다. 아들 祚榮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震王이라 자칭하였다. …… 12대가 지나 (大)彝震에 이르렀다. 참람되게 연호를 고치고, 궁궐을 본따서 짓고, 5京 15府 62州를 두었으니 遼東盛國이 되었다.<sup>41)</sup> (『遼史』 권38, 地理志 2, 東京道)

여기서는 발해의 王系를 서술한 뒤에 발해 전성기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즉 발해가 연호를 사용하고 궁궐을 ‘본따서 짓고’, 지방제도를 정비한 결과 海東盛國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sup>42)</sup> 발해의 중앙정치제도나 지방제도가 律令制로 대표되는 당나라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본따서 지은’ 궁궐의 경우도 그 모범은 당나라의 장안성임에 틀림없다. 이는 상경성의 宮城과 皇城이 外城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고, 상경성 전체가 중앙의 大路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구획된 도시계획이 장안성과 똑같다는 점에서도 알 수

40) 宣王 이후 응성의 양상에 대해서는 宋基豪, 앞의 책, 147~158쪽 참조.

41) 『遼史』 권38, 志 8, 地理 2, 東京道 “有乞乞仲象者 渡遼水自固 武后封爲震國公 傳子祚榮 建都邑 自稱震王 …… 十有二世至彝震 僭號改元 擬建宮闕 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爲遼東盛國”

42) 그런데 이 사료는 마치 발해 전성기의 모습이 大彝震代(831~857)에 해당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궁궐을 ‘본따서 지은’ 것이 대이진 때 상경성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劉曉東·魏存成, 1991(1997), 앞의 글, 579~581쪽). 그러나 이 기록은 발해의 王系가 대이진까지 이어졌음을 설명하고, 뒤이어 발해에 관한 사실을 중간에 삽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年號는 武王때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실들도 대이진 시대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宋基豪, 앞의 책, 156~157쪽). 따라서 여기서 전하는 전성기의 모습은 宣王代(818~830)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있다. 특히 당나라의 장안성은 統治型 황제가 南面하는 구조로, 3省 9寺 등 모든 행정기관은 모두 궁성 남쪽의 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sup>43)</sup>

### 3. 상경성의 구조

주지하듯이 발해인 자신이 남긴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경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발해의 문물제도는 당나라의 그것을 모방한 점이 많고, 상경성의 경우도 그 구성이나 배치가 唐나라의 長安城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안성과 비교하여 상경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宮城

궁성은 외성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며 크기는 동벽 900m, 서벽 940m, 남벽 1,050m, 북벽 1,906m의 장방형이다. 궁성의 남벽과 북벽의 중앙에는 문이 있는데, 『寧安縣誌』에서 五鳳樓라고 한 것은 궁성의 남문이다. 궁성은 중심구역과 북쪽구역, 동쪽구역 및 서쪽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곳은 중심구역으로 그 크기는 동서벽은 720m, 남북벽은 620m이다. 중국학계에서는 중심구역만을 궁성으로 본다.

중심구역은 다시 중구, 동구, 서구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중구에 7개의 궁전터가 있다. 이중 제1~제5궁전터는 『영안현지』에 五重殿이라고 한 것이다. 이 다섯 궁전은 궁성남문과 북문을 잇는 동시에 외성 남북벽의 중문을 잇는 길 한복판에 놓여있다. 모두 궁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로 규모도 웅장하다. 특히 제1, 제2궁전터가 가장 웅장하고, 제4궁전터는 온돌시설을 갖추었으며, 모두 회랑에 의해 연결되었다. 서구는 남북으로 3개의 소구역으로 나뉘는데, 가운데 구역에서는 온돌을 갖춘 침전터, 남쪽 구역에는 수백점의 도기 파편이 나온 陶器 퇴적장이 발견되었다.

43) 朴漢濟, 2000 「中國歷代 수도의 유형과 변화」 『역사와 도시』, 서울대 출판부, 79쪽.

상경성의 궁성은 그 위치나 기능에 있어서 장안성의 宮城 가운데 太極宮과 비슷하다. 장안성의 궁성은 太極宮, 東宮, 掖庭宮의 총칭이다. 이 가운데 태극궁이 황제가 거처하면서 국정을 논의하는 곳이고, 동궁과 액정궁은 각각 태자와 후궁의 처소이다. 여기서 태극궁의 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sup>44)</sup>

중국 도성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周禮』에 따르면 왕궁을 內朝·中朝·外朝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內朝는 천자가 휴식하는 곳이며, 中朝는 治朝라고도 하는데 천자가 직접 정사를 보던 곳이다. 그리고 外朝는 군신이 정사를 의논하는 곳이다. 태극궁의 正殿은 太極殿으로 궁성의 정문인 承天門의 북쪽에 위치하는데, 승천문이 대체로 외조에 해당된다. 즉 慶日의 의식, 罪科의 恩赦, 또 외국사절의 접견 등을 행할 때, 황제는 이 문까지 나와 儀禮를 거행한다. 그리고 승천문 밖은 宮城과 皇城을 가로지르는 길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황제와 신하가 대치하는 朝堂이 설치되었다.

승천문 북쪽에는 太極門이 있으며 그 안쪽으로 太極殿이 있다. 이곳이 中朝에 해당된다. 동서에 회랑이 있고 좌우에 延明門을 설치하였다. 左延明門 밖에는 門下省, 右延明門에는 中書省을 두었다. 관서의 대부분이 황성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데 반해, 이 2省이 궁성 내에 존재한 것은 그 특수한 職掌에 의한다. 즉 2성은 황제와 밀착하여 나라의 大政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관청도 천자의 대전에 근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극전 북쪽의 兩儀殿은 內朝에 해당되며, 황제가 일상의 정무에 종사하는 장소이다. 이 궁전의 북쪽이 황제의 거주구역이 된다.

발해 상경성이 당나라 장안성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상경성의 宮城의 배치도 장안성의 太極宮과 같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太極宮의 太極殿에 해당하는 제1궁전터는 궁전의 正殿이자 발해 국왕이 중조를 거행하던 곳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兩儀殿에 해당하는 제2궁전터는 내조, 承天門에 해당하는 궁성 중앙의 남문(속칭 五鳳樓)은 외조로 추정된다.<sup>45)</sup> 그런데 이 경우 제1궁전터보다 제2

44) 町野章, 1984 「隋唐都城論」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5—隋唐帝國の出現と日本』, 學生社, 188~191쪽.

45) 李殿福, 1988 「渤海上京永興殿考」 『北方文物』 1988-4; 1992 「발해사연구」 3에 재수록, 272쪽.

궁전터가 더 규모가 크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sup>46)</sup>

한편 장안성의 동북쪽에는 大明宮이 있다. 이곳은 원래 禁苑의 일부에 설치한 피서지였다. 그러나 장안성의 궁성이 低濕하였기 때문에, 이곳이 황제들의 평소 거처가 되었다. 그래서 궁성을 西內라고 부르는 데 대해 大明宮을 東內라고 부르게 되었다.<sup>47)</sup> 대명궁에서 가장 큰 궁전이 서쪽의 麟德殿인데, 宴會나 외국 사절의 來朝 등이 여기서 행해졌다. 발해의 사신이 장안성을 방문했을 때, 황제를 접견하던 곳은 주로 大明宮의 麟德殿이었다.<sup>48)</sup> 太極宮의 承天門--太極殿--兩儀殿의 구조는 大明宮에서 含元殿(外朝)--宣政殿(中朝)--紫宸殿(內朝)에 해당한다. 그런데 西內의 경우 태극전과 조당 사이에 승천문이 있지만, 대명궁의 경우에는 함원전과 조당이 구별되지 않고 밀착되었다.<sup>49)</sup> 발해의 사신이 주로 견문한 곳이 대명궁이라면, 상경성의 궁성의 궁궐 배치도 태극궁보다 대명궁을 모범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상경성 궁성의 제1궁전터보다 제2궁전터가 더 규모가 크고, 두 궁전 사이에 문이 설치된 점에서 제2궁전터가 정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크다.<sup>50)</sup> 즉 제1궁전터가 外朝에, 제2궁전터가 中朝에 해당된다. 그리고 제1궁전터와 궁성 남문 사이의 넓은 광장에 朝堂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한편 제4궁전터의 경우 기단이 다른 궁전들에 비해 낮다. 그 궁전은 중심에 있는 본채와 좌우의 곁채 모두 3개의 집으로 이루어졌고, 이 궁전터의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집이 있다. 여기에는 모두 온돌이 설치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규모상에서 제1·2·5궁전터와 구별되므로 제4궁전터는 제3궁전터와 함께 왕이나 그 측근이 일상적으로 쉬던 寢殿으

46) 제1궁전터의 기단은 동서 길이 55.5m, 남북 너비 24m이며, 제2궁전터의 경우 동서 길이 약 120m, 남북 너비 약 30m이다(주영현, 앞의 책,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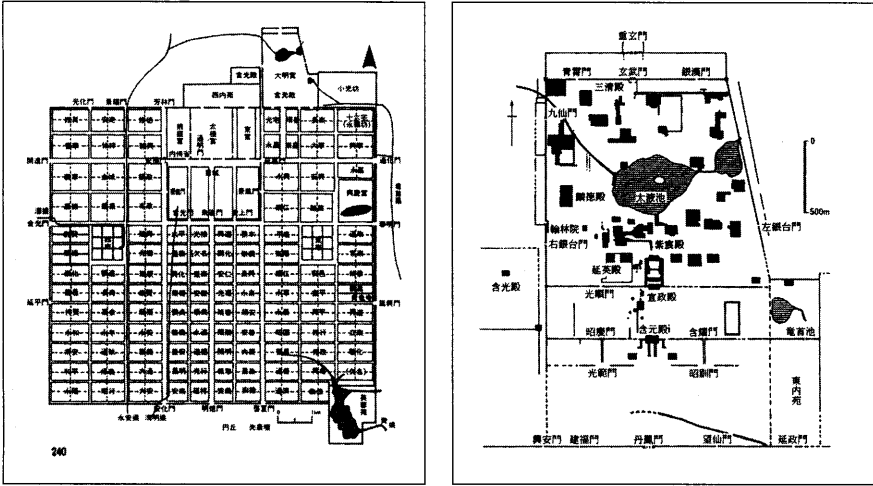
47) 礪波護, 1976 『中國の都城』 『都城』, 社會思想社, 327쪽.

48) 당나라 기록에 따르면, 大曆八年(773) 6월·大曆九年(774) 2월에는 延英殿(『冊府元龜』 권972, 朝貢5 및 같은 책 권996, 納質)에서 발해사신을 접견하였다. 그리고 元和四年(809) 1월·元和七年(812) 1월·元和十五年(820) 2월·동 12월·長慶二年(822) 1월·太和元年(827) 4월·太和二年(828) 12월·太和六年(832) 2월·太和七年(833) 2월·開成二年(837) 1월·開成三年(838) 2월·會昌六年(846) 1월에는 麟德殿에서 연회를 베풀었음을 전하고 있다(『冊府元龜』 권976, 褒異3). 그런데 會昌 6년 1월의 경우 발해의 사신이 宣政殿에서 조회하고 나서 麟德殿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였으므로, 다른 기사들도 모두 宣政殿에서의 조회는 생략되었을 것이다.

49) 町野章, 앞의 글, 204쪽 및 209쪽.

50) 丹化沙, 1979 『略論渤海上京龍泉府』 『黑龍江大學學報』 2: 1997, 『高句麗 渤海研究集成』 渤海卷(2), 603쪽 및 三上次男, 앞의 글, 166쪽. 특히 三上次男은 大極殿이 朝集殿과 구획되어 국왕의 권위는 일층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서, 궁전 내의 朝集殿·大極殿에 의해 상징되는 발해 국왕의 권력은 제도적으로 컸다고 추정한다.

〈그림 8〉 長安城 太極宮 및 大明宮 배치도



전거 : 『古代の宮殿と寺院』(町野 章, 講談社, 176쪽)

로 파악된다.<sup>51)</sup> 따라서 이곳이 外朝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상경성 궁성의 구조는 당나라 장안성과 비교하여 유추할 수 있지만, 궁성이나 궁전의 명칭은 기록이 전무한 상황에서 알 수 없다. 다만 궁전의 명칭을 추정할 수 있는 사료가 발해 멸망기에 등장한다.

太祖(耶律阿保機)가 동쪽으로 (발해를) 정벌하니, 大諲譭이 항복하였다. (발해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공격하였다. 솟목이 제일 먼저 (성에) 오르니 발해가 평정되었다. 조서를 받들어 太祖의 공덕을 永興殿 벽에 새겼다.<sup>52)</sup>

遼太祖가 발해를 멸망시키고 나서 솟목이에게 태조의 공덕을 새기게 한 永興殿은

51) 주영현, 앞의 책, 34~40쪽. 한편 발해의 상경성이 당나라 장안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점 못지않게,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사실은 제4궁전터의 경우 은둔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상경성 안팎의 9개의 절터에서 사용된 기와의 모양은 궁전터의 그것과 같고, 그 대부분은 蓮華文에 약간의 장식문을 가미하였는데, 이 또한 고구려 瓦璋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추정된다(三上次男, 앞의 책, 167~168쪽).

52) 『遼史』 권75. 列傳5. 耶律突呂不 “太祖東伐 大諲譭降而復叛 攻之 突呂不先登 渤海平 承詔銘太祖功德于永興殿壁 班師已下州郡往往復叛 突呂不從大元帥攻破之”

발해 상경성의 다섯 궁전 가운데 하나의 명칭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sup>53)</sup> 그리고 여기에 정복자의 공덕을 새겼다는 점에서 영흥전은 궁성 안의 正殿의 명칭일 것이다. 그런데 장안성의 궁성의 명칭인 太極宮은 中朝인 太極殿에서 유래한 점을 감안 하면, 발해의 경우도 유사하였을 것이다. 즉 상경성 궁성에서 中朝가 永興殿이라면 궁성의 명칭도 永興宮이라고 불리었을 가능성이 높다.<sup>54)</sup> 이밖에 궁성 안에서 ‘保德’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영흥전을 제외한 다른 한 궁전의 이름이 保德殿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흥궁의 구체적 범위가 태극궁과 비슷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궁성의 나머지 부분 가운데 東宮을 동쪽 구역의 禁苑 뒤쪽으로 보기도 하고,<sup>56)</sup> 제8호 도로에 의해 궁성과 구분되는 別宮[離宮]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57)</sup> 그러나 궁성의 중심부분만 궁성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永興宮의 동쪽은 東宮, 서쪽은 西宮으로 보아 13~20호 건축터와 28~31호 건축터가 각각 이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기도 한다.<sup>58)</sup>

## 2) 皇城

황성은 제5호 도로를 사이에 두고 궁성의 남쪽에 위치하며, 크기는 동벽 447m, 서벽 454m, 남벽 1,045m, 북벽 1,050m로 동서로 긴 장방형이다.

황성은 동서로 3개의 소구역으로 나뉘는데, 동서 두 구역은 동서 413m, 남북 355m로 서로 크기가 같으며, 여기서 관청터로 추정되는 10개의 건축터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곳은 그 위치나 건물의 배치로 보아 발해의 중앙정치기구인 3省 6部를

53) 金毓勳, 『渤海國志長編』 권19, 叢考, 41-b.

54) 李殿福, 앞의 글, 273~274쪽. 단 이전복은 영흥전이란 이름은 文王이 상경 궁성을 건축할 때 지은 이름으로서 大諲譔 시대까지 사용하였으며, 문왕의 연호를 大興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中朝의 장소인 정전을 永興이라고 하였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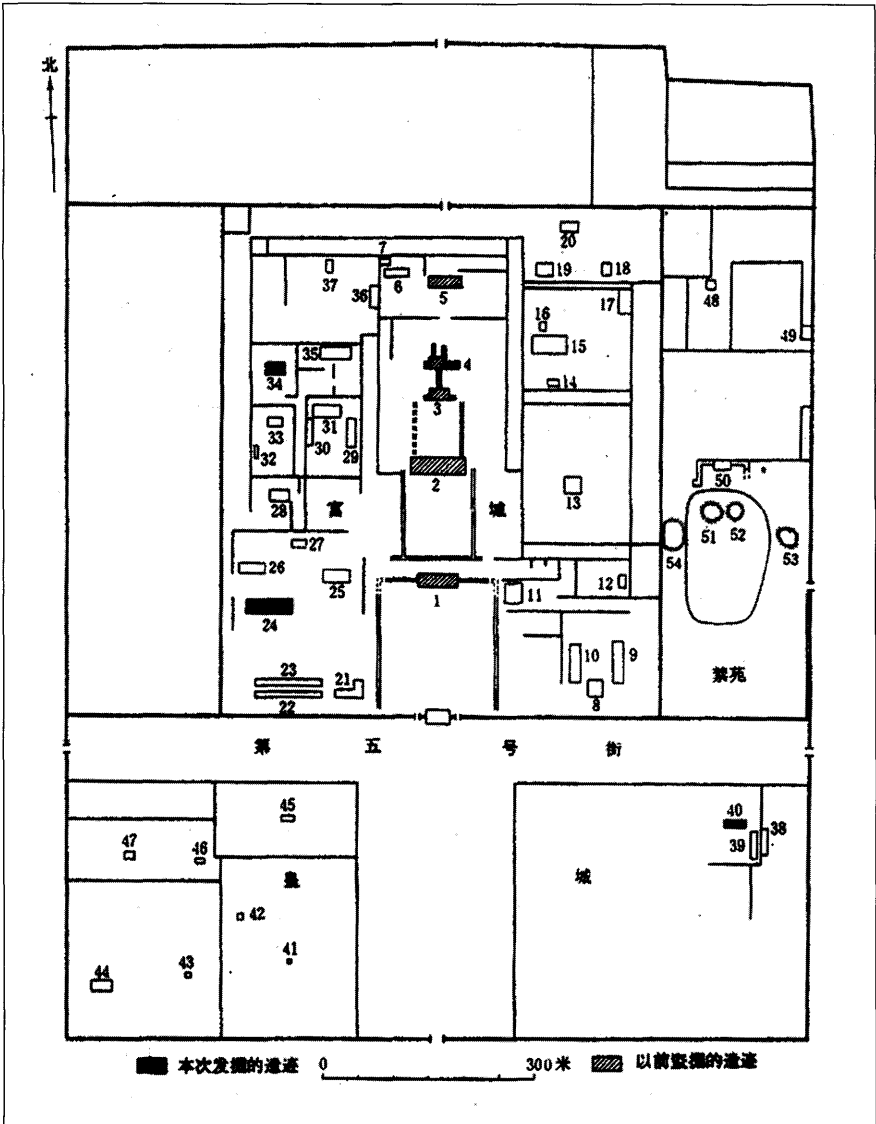
55) 丹化沙, 앞의 글, 603쪽.

56) 한용걸, 1998 「발해건축의 몇가지 특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8-4, 24쪽.

57) 장상렬, 1998 「발해의 수도 상경룡천부와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의 계승관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8-4, 31쪽.

58) 李殿福, 앞의 글, 274쪽.

〈그림 9〉 上京城 宮城 및 皇城 평면도



전거 : 『六頂山與渤海鎮』(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1997, 48쪽)



중심으로 하는 관청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구는 지세가 평탄하고, 유물이 나 유적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구는 황성남문과 궁성남문을 잇는 길이며 동시에 궁성 앞 광장이기도 하다. 광장의 동서 너비는 222m이며 남북의 길이는 황성 남북의 길이와 같다.<sup>59)</sup>

발해는 중앙통치기구로 3省(政堂省, 宣詔省, 中臺省), 6部(忠·仁·義·智·禮·信 部), 1臺(中正臺), 7寺(殿中·宗屬·太常·司賓·大農·司藏·司膳寺), 1院(文籍院), 1監(胄子監), 1局(巷伯局) 등을 설치하였고, 군사제도로 左右猛賁衛, 左右熊衛, 左右羆衛, 南左右衛, 北左右衛 등 10衛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官署가 황성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이 가운데 10衛는 궁성 및 황성의 수비를 담당하였다. 발해의 전성기 때의 궁성 및 황성의 모습은 다음 사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大和 6년(832) 12월 戊辰에 內養 王宗禹가 발해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발해가 左右神策軍과 左右三軍, 그리고 120司를 설치했다고 말하고 그 모습을 그려서 바쳤다.<sup>60)</sup>

832년(咸和 2)에 발해에 파견되었던 당나라 사신의 보고에 의하면 발해는 左右神策軍과 左右三軍 및 120司를 두었다. 당나라의 경우 장안성의 大明宮을 호위하는 군영을 左右三軍이라 하며, 左右神策軍은 三軍의 하나이다. 좌우삼군은 北衛三軍이라고도 부른다. 南衛(皇城)에 배치된 16衛가 전국에서 番上하는 府兵에 의해 편성된 정규군인 데 반해, 이는 황제직속의 근위군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sup>61)</sup>

발해가 내분기를 극복한 이후 장안성을 본따 상경성을 수축하였다면, 도성의 수비나 관서의 배치도 장안성을 모범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左右神策軍이 左右三軍과 구별된 까닭은 알 수 없지만, 그 성격은 당과 마찬가지로 국왕 직속의 궁성 수비대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그림에 포함된 120司의 경우 황성에 배치된 관서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인다.<sup>62)</sup> 참고로 당나라 장안성의 황성도를 제시하면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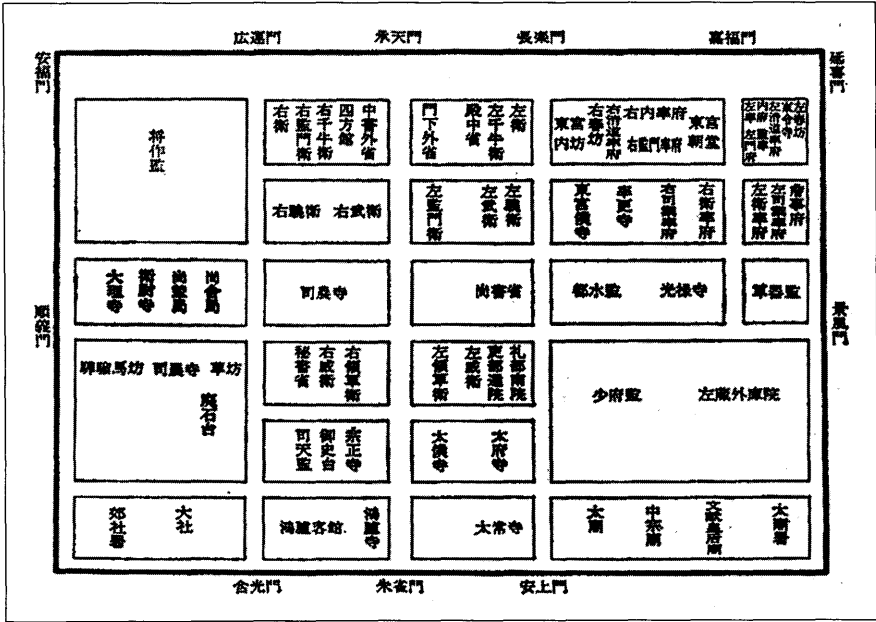
59) 주영헌, 앞의 책, 25~26쪽. 한편 李殿福은 영흥전의 좌우에는 3省 6部 7寺가 분포되어 있는데, 8~12호 건축터와 21~27호 건축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며, 또한 영흥궁 남쪽의 왕성(황성)안은 10衛의 소재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38~47호 건축터로 이는 10개 건축터와 맞아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따르기 어렵다.

60) 『舊唐書』 권17下, 本紀 17下, 文宗 下 “太和六年十二月 戊辰 內養王宗禹渤海使廻 言渤海置左右神策軍左右三軍一百二十司 畫圖以進”

61) 愛宕元 譯注(徐松 撰), 1994 『唐兩京城坊攷』, 平凡社, 38~39쪽 및 47쪽.

과 같다.

〈그림 10〉 長安城 皇城 배치도



전거 : 『唐兩京城坊攷』(愛宕元 譯註, 1994, 29쪽)

### 3) 外城

외성의 규모는 동벽 3,358.5m, 서벽 3,406m, 남벽 4,586m, 북벽(凸형) 4,946m의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총둘레는 162,965m이다. 대체로 당의 장안성(동서 약 9.7km, 남북 약 8.7km)의 1/4이며, 일본의 平城京과 平安京(동서 약 4.5km, 남북 약 5.3km)보다 조금 작다.

62) 종래 이 사료를 10衛외에 6軍이 별도로 설치되고, 또 120司가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당나라에 비해 소국인 발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하여 믿지 않는 견해(金毓黻, 앞의 책, 권15, 13a~b)도 있지만, 관서의 증설이 아니라 황성의 관아 배치도로 본다면 별 무리가 없다.

성문은 동벽과 서벽에 각각 2개, 남벽과 북벽에 각각 3개 있는데 서로 일직선상에 있다. 성안에는 이 성문들을 연결하는 길과 그밖의 길을 합쳐 모두 11개의 도로가 있다. 즉 외성벽 안을 감돌은 제11호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도로는 모두 일직선으로 마주 향한 성문 또는 성벽 사이를 이은 까닭에 十字形을 이루며 바둑판 모양으로 전체 성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놓았다.

이중 너비가 110m로 가장 넓은 것은 흔히 唐 長安城의 朱雀大路를 연상시키는 제1호 도로(2,195m)이다. 이 도로는 외성 남벽의 가운데 문과 황성 남문을 연결하는데, 이를 통해 곧장 궁성으로 들어간다. 제1호 도로는 성을 동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편의상 그 동쪽을 東半城, 서쪽을 西半城이라고 부른다. 당나라 장안성이나 일본의 平城京·平安京은 이 길을 중심으로 각각 左京과 右京으로 불렸기 때문에 발해 상경성의 경우도 당시에는 이렇게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

도로들에 의해 바둑판 모양으로 갈라진 외성의 각 구역안에는 당시 사람들이 살던 집과 절, 시장 같은 것이 있던 里坊이 있다. 동반성 里坊의 보존 상태는 좋지 않으나, 서반성 里坊의 배열상태는 잘 밝혀져 있다. 여기에는 41개의 里坊이 있는데 큰 것은 9개, 작은 것이 32개이다. 里坊의 크기는 동서 465~530m, 남북은 큰 것이 350~530m 작은 것이 235~265m이다. 里坊은 다시 여러 개의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획의 규모는 각각 다르다. 그러나 동서 혹은 남북으로 질서 정연하게 쌓은 벽에 의하여 나누어진 점에서는 모두 같다. 각각의 里坊에는 귀족, 관료,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였을 것이다.

외성은 좌우대칭 구조로 이루어졌으므로 동반성에도 41개의 里坊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모두 82개의 里坊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63)</sup> 다만 궁성의 동쪽에는 2개의 里坊이 하나의 구획(동서 500m, 남북 780m)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궁성의 동문을 거쳐 궁성의 禁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구획안에 비교적 규모가 큰 집자리가 15군데나 있는 점은 궁성안의 모습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곳은 別宮[離宮]으로 보인다.

63) 동반성은 서반성보다 315m 더 넓기 때문에 里坊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좌우대칭으로 구획된 도시계획이라는 점에서 동반성의 경우 里坊의 규모를 크게 하고 숫자는 똑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반성의 세로 제3열 북쪽에서 제4~5里坊 사이에는 동서 길이 190m, 남북 너비 110m되는 장방형의 구획이 있는데, 여기서 5개의 집터가 발견되었다. 이 구획은 두 里坊 사이에 위치한 점이 다른 里坊과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좌우대칭의 도시구획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西市에 해당되고, 동반성의 경우에는 東市가 있었을 것이다.

그밖에 10개의 절터가 발견되었는데, 두 곳(제8·9호 절터)은 외성 밖에 있다. 외성 안에 있는 절터 가운데 세 곳의 위치는 앞서 언급했듯이 동경 팔런성 남벽 바깥에서 발견된 3개의 절터와 비슷하다.

이와 같은 상경성의 건설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이 적용되었다. 첫째 4각형을 기초로 하는 방안법, 둘째 왕권중심의 겹성제도[重城制], 셋째 축대칭수법, 넷째 2등분법이다. 특히 겹성제도는 도성의 대지선정에서 전반적으로 북으로 차츰 높아져 그 윗부분에 궁성과 황성이 배치하면서 도시전체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 궁성이 도시전반, 주민 거주지 위에 '군림' 하는 자세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축대칭수법을 통해 외성의 남중문과 북중문을 통하는 남북중심축이 대칭의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 중심축은 궁성의 5개 궁전과 궁성의 남북문, 황성 남문을 통과하고 있다. 겹성제도와 축대칭수법은 모두 왕권중심의 도시계획적 표현의 하나이다.<sup>64)</sup>

皇城 이남의 외성구획은 2등분법이 적용되어 제1호 도로에 의해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 東半城과 西半城을 동서와 남북 방향에서 다시 각각 2등분하면 4개의 정방형 구획이 얻어지는데, 이 구획들은 너비가 78m의 도로들(제2·3·4호 도로)에 의하여 갈라진다. 이 구획 하나하나를 도시계획상 구역을 이룬다. 정방형의 이 구역들을 동서방향으로만 2등분하면 동서로 긴 장방형 구획들로 나뉘어진다. 이 장방형의 두 변의 비는 약 1 : 2이다. 이 장방형 구획은 도시계획상 소구역을 이루며 소구역들 사이는 너비 28m의 도로들(제7·10호 도로)에 의하여 구분된다. 이 소구역들이 도시계획의 기본단위가 된다. 장방형 소구역들을 동서와 남북 방향에서 다시 각각 2등분하면 동서로 긴 장방형 구획이 각각 4개씩 얻어진다. 이 장방형구획의 두

64) 장상렬, 1998 「발해 상경룡천부터에 표현된 도시계획방법과 그 고구려적성격」 『조선고고연구』 1998-2, 32~34쪽.

변의 비는 약 1 : 2이다. 이 장방형 구획이 도시계획의 최소단위인 里坊을 이룬다. 里坊들 사이는 里坊 벽에 의하여 구분되었다. 여기에서 각 이방의 동서길이는 궁성의 절반너비와 같고 남북길이는 그 절반에 맞먹는다. 그리고 궁성과 황성 좌우구획에서도 동서방향에 대해서는 2등분법으로 하였다. 다만 남북방향에서만 한번 3등분법을 썼다.<sup>65)</sup>

상경성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궁성과 황성이 외성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며 그 둘레를 둘로 쌓아 일반인의 거주지인 里坊과 구별한 점이다. 또한 里坊들 사이를 경계지는 里坊 벽(담장)은 돌로 벽심을 넣고 그위에 흙은 덮은 것인데, 현재 남아있는 돌심벽은 벽체부분이 너비 1.1m, 밑부분이 너비 1.8m나 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짐작된다.<sup>66)</sup> 이는 당나라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도성의 규모가 서로 다른만큼 설치된 里坊의 숫자가 다르다. 즉 상경성에는 82개의 里坊이, 당나라 장안성의 경우 110坊, 일본의 平城京의 경우 68坊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제사와 행정의 중추기관을 궁성 및 황성 한 곳에 집중하고, 민간의 가옥과 격리한 것은 北魏의 洛陽城이 처음이다. 그리고 낙양성에 대규모의 里坊이 출현하는 것은 대규모의 徙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67)</sup>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계승한 당나라 장안성의 경우 주민은 성밖에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인민은 사방으로 외성에 버금가는 두꺼운 坊牆에 둘러싸인 坊內에 살면서 2개 혹은 4개의 坊門을 통해서 주간에만 출입할 수 있었다. 교역행위는 市(東市와西市)라고 불리는 특정의 坊內에서만 정오부터 일몰 때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런 도시구조의 목적은 주민통제에 있었다.<sup>68)</sup>

한편 일본의 경우 藤原京 천도(694)에서 平安京 천도(794)에 이르기까지 천도에 앞서 宅地班給이 실시되는 특징을 보인다. 宅地班給의 직접적인 대상은 주로 官人인데, 日本律令國家의 支配者層은 畿内の 有力豪族 출신이다. 택지만급은 이들에게 畿内の 본거지를 떠나 도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며, 또한 호족의 지위를 벗고 도

65) 장상렬, 앞의 글, 34~35쪽.

66) 주영현, 앞의 책, 21쪽.

67) 北村優季, 1992 「都城」 「古代を考える 唐と日本」(池田溫 편), 吉川弘文館, 188~195쪽.

68) 朴漢濟, 앞의 글, 80~81쪽.

성에 생활의 기반을 갖는 貴族으로 轉身하는 것을 의미한다. 徙民이라는 점에서는 중국에서 행해진 것과 공통성을 갖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관료제 형성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데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성은 權力集中의 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sup>69)</sup>

都城이 대규모의 徙民을 통해 이루어지고 아울러 권력집중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은 발해의 상경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발해는 지방 통치를 위해 초기에 현지 지배자의 세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중앙귀족으로 편입시켜 나가다가, 문왕 후기부터 선왕대까지는 지방관들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70)</sup> 상경성의 확대가 宣王·大彝震代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와 무관치 않다. 도성의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민이 요구되고, 도성 내부에 관료와 인민을 통제하기 위한 里坊 구조를 갖추게 된 사실 등은 지방관의 파견과 함께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의 확립에 수반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발해의 도성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수도였으며 규모도 방대한 상경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발해 전기에 舊國→顯州(中京)→上京→東京→上京으로의 네 차례의 천도 과정 속에서 상경성이 결국 수도로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그러한 가운데 상경성의 규모도 확대되었음을 살펴보았다.

宮城, 皇城, 外城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규모의 현존 상경성은 발해 전기의 도성이었던 中京이나 東京과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상경성은 천도와 환도 과정에서 규모와 구조가 큰 변화를 겪었다. 즉 상경은 756년 무렵 천도하였을 때는 지금의 宮城 정도의 규모였으며, 중경이나 동경과 마찬가지로 內城과 外城으로 이루어진 구조였다. 이러한 규모와 구조의 상경은 결국 文王代부터 추진된 체제정비

69) 北村優季, 앞의 글, 199~202쪽.

70) 宋基豪, 1997 「渤海의 地方統治와 그 실상」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韓國古代史研究』11), 신서원.

과정과 맞물려 확대되어 간 것이다. 그 단서는 東京 도읍기에 外城의 설치가 계획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발해는 文王 사후(793)에서 宣王 즉위(818)까지 內紛期에 휩쓸렸기 때문에, 곧바로 상경의 규모를 확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내분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정기인 康王代에 현존 상경성의 皇城 규모로 확대되었고, 宣王 이후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外城을 갖춘 현존 상경성의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아울러 內城이 宮城과 皇城으로 구분되고 아울러 궁성 내부에도 새로운 궁궐이 조영되었다.

이러한 규모의 상경성은 唐나라 長安城과 유사하게 궁성과 황성이 외성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며 일반 주민의 거주지인 里坊과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도성 구조는 統治型 皇帝가 南面하여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발해의 지배층이 지향한 지배체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